글.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홍보팀

이비인후과

김청수 교수

두경부 종양 · 음성 분야 차세대 주자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김청수 교수는 두경부 종양과 음성치료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으로 떠오르는 의학자이다. 지난해 초 음성질환을 초기에 진단하고 치료 및 재활훈련이 가능한 음성검사·치료실을 개소했고, 최신 내시경 장비인 후두 스트로보스코프(Laryngeal Stroboscope)와 음성분석 장비를 도입했다. 이 장비는 대전·충남 유일의 Full-HD급 화질로 뛰어난 해상도가 장점이다. 음성 장애는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후두 및 성대의 구조나 기능의 이상 때문에 음성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으로 후두 기능의 정확한 평가가 우선시되는데, 음성검사 치료실이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비인후과 김청수 교수가 있다.

환자나 보호자에게 예측
가능한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해결책을 상의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이러한
일은 의사와 환자의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넓은 영역을 커버하는 이비인후과 수술에 매료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김청수 교수는 가톨릭대 의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수련의를 마쳤다. 2011년부터 두경부를 부전공으로 했으며 의정부성모병원, 서울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 등 모교 교수 요원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현재에 이르렀다. 또한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두경부종양학회, 두경부외과학회, 음성학회 등 다양한 학회에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처음 이비인후과를 접한 것은 학생 때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크게 관심 가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본과 실습, 인턴을 하면서 수술이 적성에 맞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였죠. 그런데 레지던트 지원서를 작성할 무렵 여의도성모병원 마취과를 돌게 되었는데 그때 이비인후과 방에 자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0분 걸리는 수술에서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수술까지 아주 다양한 것을 보았어요. 제가 좋아는 하지만, 얼마나 잘 할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넓은 영역을 커버하는 이비인후과 수술이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능력에 따라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하면 되겠구나 생각했지요."

두경부 종양, 음성 분야에서 탁월한 실력과 노하우 겸비

그렇게 이비인후과를 선택한 김 교수는 현재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에서 두경부 분야를 맡고 있다. 두경부는 이비인후과에서는 메이저 파트이지만, 김 교수는 '이비인후과의 잡화점'으로 표현했다. 위로는 두개저에서 아래로는 가슴 위의 넓은 진료 부위에 따라 환자군이 고루 부포해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분야를 진료하는 만큼 분과도 상당히 많지만 크게 종양, 음성 그리고 연하로 나누어진다. 김 교수는 현재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종양과 음성환자 치료를 도맡아 진료하고 있다. 가톨릭대학교 의대는 전통적으로 두경부 종양과 음성 분야가 우위에 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수련하면 당연히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김 교수는 이런 배경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전에서 우리 대학병원의 위상이 저평가되어 있어 항상 아쉽다고 말한다. 김 교수는 "대전 · 충청권 환자들이 두경부 종양 치료를 받으려면 오래 대기하거나 수도권으로 올라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수도권을 선호하기도 하고요. 최근엔 그동안 치료받은 환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환자들이 모이고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됩니다. 더욱이 음성 검사 및 치료실은 최신의 장비로 세팅돼 타 병원보다 정확한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환자, 교육, 연구 3박자를 위한 끝없는 도전

두경부 영역은 민감하고 기능이 다양하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진료와 치료를 하면서 이런 부위에 자극을 주게 되는 일은 항상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 치유 후 기능의 장애를 겪을 수도 있고, 재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김 교수는 환자, 보호자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환자나 보호자에게 예측 가능한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해결책을 상의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이러한 일은 의사와 환자의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환자의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기억에 남는 환자의 이야기로 이어졌다.

"저에게 겸손을 가르쳐 준 환자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속된 말로 한참 숙련도가 물이 오를 때였습니다. 수술은 잘되었고 환자분은 연고지 관계로 다른 곳에서 항암 방사선치료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병기도 괜찮았고 당연히 결과가 좋을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얼마 뒤 재발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환자에게 "제가 낫게 해 주겠습니다"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하고 "환자분이 치유되는 것을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얻은 경험은 한마디로 '꺼진 불도 다시보자'이다.

"이전에 편도 주위 농양으로 의뢰된 환자가 있었습니다. 증상이 호전되었고 환자도 병원 방문 이유가 없어서, 추적 관찰에서 누락되었죠. 한 달 뒤 같은 증상으로 방문했고, 편도암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물론 환자는 완쾌되었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또 넓게 보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환자였습니다." 김 교수는 현재 성대 상처 치유를 목표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포스텍과 함께 성대재생 연구를 하고 있으며,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결과 확인 후 추가 실험도 진행할 계획하고 있으며, 여건이 되면 성대 신경재생 연구도 같이하고 싶다는 목표를 밝혔다. "예전 우스갯소리로 '고1때는 서울우유를, 고2는 연세우유 그리고 고3은 아무 우유라도 좋아한다'라는 말이 있었죠. 그만큼 현실과 타협한다는 것인데, 저는 아직 희망을 못 버리고 있습니다. 큰 목표는 현재 잘나가는 교수님처럼 독자 연구소를 운영하는 것인데 아직 희망사항일 뿐이죠. 고통 받는 환자들을 돕기 위해 진료뿐 아니라 교육과 연구 등 학문적인 노력을 더 기울일 것입니다."